

비전문, 부도덕 역대 최악의 낙하산 <mark>김석기 OUT!</mark>



공항공사 산하 전국 14개 공항 동시 일인시위 중 청주공항 사진 김포,김해,제주,대구,광주,청주,양양,무안,울산,여수,사천,포항,군산,원주 공항에서 "김석기 퇴진"의 목소리가...

'역대 최악의 낙하산', '인사참사'라는 여론의 비난에도, 용산 참사 과잉진압 책임자 김석기(전 서울경찰청장)가,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 되었다.

김석기는 용산철거민들의 농성시작 만 하루로 못되어 성급 하고 무리한 진압을 지휘해 여섯 명이 사망한 참사를 불렀음 에도 "무전기 꺼놨다"고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발 뺌하다, 여론의 지탄을 받고 쫓겨나듯 공직에서 물러난 뻔뻔 한 인물이다.

그런 자가 공기업 사장이라니? 이명박 정부의 "용산참사 계승"이 박근혜 정부의 국민대통합 인가?

임원추천위 서류심사 꼴찌, 면접심사 꼴찌, 전문성 평가도 꼴찌

전문 공기업, 우수 공기업이 경찰 퇴물 출신의 노후대책으로 전락!

김석기는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서 모두 최하점을 받았다. 특히 임원추천위 핵심 심사 기준인 전문성 분야에서는 유독 큰 점수 차로 꼴찌였다.

"공기업에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고 공언한 바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또 다시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비전문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을 기만한 낙하산 인사 철회하고, 김석기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비전문 낙하산 김석기,

"용산참사책임자, 막말, 거짓말, 무책임, 직무유기, 출세 주의자"

이런자가공기업사장이라니요?

■ 아랫사람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무책임과 직무유기

"진압작전 동안 집무실에 무전기를 꺼 놨다" 무책임과 직무유기 "진압작전을 지휘하지 않았다"

-> 지휘 문서 서명 문건 공개되어, 책임회피위한 거짓말로 들통

■ 막말, 거짓말

장례에 대해 "범법자들의 유가족에 돈을 줄 수 있는가?"라고 막말 용산 농성의 경우 "미국 경찰이었으면, 발포했을 것이다"고 망언 여섯 명이 죽었는데 "용산진압은 정당했고, 국민을 지켰다"고 망언 공항공사 사장임명 논란 관련 "유가족에게 이미 사과했다"고 거짓말



2011년 보은인사로 오사카 총영사 부임, 8개월<mark>만에 총선출마를 위해 사임. 인사</mark> 발령 전 임지 무단이탈 귀국해 외교관계자들과 일본교민들도 비난

공항공사 자기소개서에 경찰 30년 경력을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써 출세위해 경찰경력도 폄하

이런 자가 전국 14개 공항 등을 운영 관리하는 대한민국 공항운영 전문 공기업에 낙하산 사장으로 있다는 것만으로도, 공항이용이 불안하기 짝이 없다. 비전문, 부도덕,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는 즉각 퇴진하라.











김석기 퇴진운동에 힘을 모아 주세요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매일 공항공사 앞에서 김석기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김석기는 경비용역까지 동원해, 공사 주변 유가족들의 접근을 폭력적으로 막으며, 절규하는 유가족들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 내년 1월이면 용산참사 5주기가 됩니다. [지시키기 위한 목소리에 힘을 모아 주신시오

이대로 5주기를 추모할 수 없습니다. 김석기를 퇴진시키기 위한 목소리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문의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02-3147-1444 후원 : 국민 011201-04-124109 [이원호(진상규명위)]